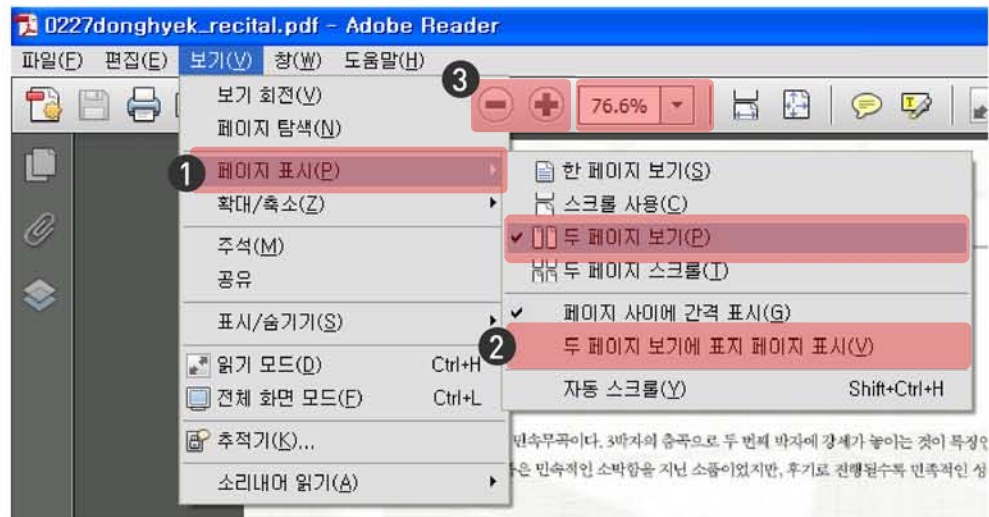


CREDIA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의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설정해서 보시면 더욱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Guide 1 프로그램북 2페이지씩 보기 (프로그램북이 한 페이지씩 보일 경우)



- ① PDF reader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 선택
- ②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에 표지 페이지 표시 선택 해제
- ③  원본 사이즈로 보기  
  확대 및 축소는 -, + 버튼 클릭

## Guide 2 프로그램북이 2페이지씩 보일 경우 다른 설정 없이 보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yung-Whun  
Chung  
&  
One Korea  
Orchestra**

##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Club BALCONY가 제안하는 품격있는 문화예술의 경험과 서비스

클럽발코니와 함께 감동의 문화생활을 설계해보세요!

### JOIN Club BALCONY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예매고수의 노하우)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문화애호가의 필수품, Club BALCONY 매거진 무료우송  
모바일 회원카드 확인 후 크레디아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증정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만료 후 재가입 시 할인 혜택

### JOIN CIELOS Club

CIELOS 회원만을 위한 프라이빗 음악회, 전시회, 렉처 문화행사 무료초대 (동반1인 포함)  
CREDIA의 엄선된 공연 패키지 30~50% 할인제공 및 좌석우위  
Club BALCONY 평생회원 자격

## Upcoming Programs

### 클럽발코니 여행 프로그램

조성진 싱가포르 피아노 리사이틀 X 싱가포르 여행 3박5일 | 9/8(일)~12(목)

### 클럽발코니 렉처 프로그램

클럽발코니 x 오프트 친절한 디토씨의 음악여행 | 2019년 8월 ~ 12월

- 8/22 요요 마
- 9/5 조성진&마티아스 괴르네
- 10/17 미샤 마이스키 & 무지크 콜레기움 빈터투어
- 11/21 안네 소피 무터
- 12/19 사라 장

### 클럽발코니 아트데이

페터 팝스트: 피나 바우쉬 작품을 위한 공간들 | 8/29(목) 오후 4시 예정, 복합문화공간 피크닉 PIKNIC



CREDIA

Myung-Whun Chung &  
One Korea Orchestra

정명훈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

2019년 8월 18일 (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5PM Sunday, August 18, 2019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

지휘/피아노, 정명훈 Myung-Whun CHUNG, Conductor/Piano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One Korea Orchestra

주최 **MBC CREDIA Projects MIO|M**

주관 **CREDIA**  
INTERNATIONAL

후원  통일부  행정안전부  KOREAN AIR 





# CREDIA

“음악으로 하나될 수 있어요.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의 비전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꿈이며,  
그 꿈에 제가 음악가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한 나라가 되는 꿈입니다.”

-정명훈-



# Myung-Whun Chung & One Korea Orchestra

모차르트 1756-1791  
Austria

W. A. Mozart

피아노 협주곡 23번 가장조, K. 488

27'

Piano Concerto No. 23 in A Major, K. 488

- |                    |        |
|--------------------|--------|
| I. Allegro         | 빠르게    |
| II. Adagio         | 매우 느리게 |
| III. Allegro Assai | 매우 빠르게 |

Piano 정명훈

I N T E R M I S S I O N

차이콥스키 1840-1893  
Russia

P. I. Tchaikovsky

교향곡 6번 나단조, 작품 74 '비창'

50'

Symphony No. 6 in b minor, Op. 74 'Pathétique'

- |                                |                       |
|--------------------------------|-----------------------|
| I. Adagio - Allegro non troppo | 매우 느리게 -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
| II. Allegro con grazia         | 빠르고 우아하게              |
| III. Allegro molto vivace      | 매우 빠르고 생기있게           |
| IV. Finale: Adagio lamentoso   | 피날레: 느리고 비통하게         |

방송중계를 위한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관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가장조, K. 488

Wolfgang Amadeus Mozart  
Piano Concerto No. 23  
in A Major, K. 488

1781년에 고향 잘츠부르크를 떠나 빈으로 이주한 모차르트(1756-91)는 1782년 가을부터 1786년 겨울까지 약 4년간 무려 열다섯 곡의 피아노 협주곡(11번~25번)을 쏟아냈다. 이 곡들은 자신의 이전 작품들이나 선배들의 기존 작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 길이는 30분을 넘나들고, 관악기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관현악의 음색이 화려하며, 각 악장은 다양한 표정으로 대조의 폭을 넓혀 극적 표현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 피아노와 관현악 반주의 단순한 구성을 넘어서 있다. 모차르트는 이렇게 피아노 협주곡을 교향곡에 필적하는 장르로 올려놓았으며, 이 작품들로 스타가 되었다.

오늘 연주회의 첫 곡인 <피아노 협주곡 23번, K.488>은 이러한 모습이 한창 발전하던 시기의 작품이다. 모차르트가 이 곡을 작곡했던 때는 1785~86년 사이의 겨울로, 이 기간에만 22번부터 24번까지 세 개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이어 완성했다. 이와 동시에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1786)도 작곡하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이 작품들은 다른 협주곡에 비해 극적인 표정이 더욱 돋보인다. 특히 23번은 2악장이 그의 모든 협주곡 중에서 올림바(F#)단조로 작곡된 유일한 악장이라는 사실 덕에, 이러한 특징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이 조성은 <피아노 협주곡 23번>의 중심 조성인 가(A)장조의 나란한 조로서 파격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분명 모차르트가 선호하는 조성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애수의 미학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모차르트의 가장 아름다운 음악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 곡의 초연은 1786년 3월 2일 예약연주회에서 모차르트의 지휘와 피아노로 이루어졌다. 당시 모차르트의 예약연주회 회원은 174명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빈의 귀족들로서 적지 않은 수였다. 모차르트는 세 번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6플로린에 팔았으며, 매회 거의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 곡의 초연 역시 매우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생을 마감할 즈음에는 곡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았고,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모차르트의 전형적인 따뜻한 분위기의 서정미가 돋보인다. 관현악의 긴 서주는 노래하는 듯한 제1주제와 불안한 기분을 반음계적인 하행으로 해결하는 제2주제를 마치 예고편처럼 미리 제시한다. 그리고 곧바로 등장하는 피아노도 이 두 주제를 또다시 제시하는데, 이렇게 관현악과 피아노에 의한 두 개의 제시부를 갖는다. 피아노에 의한 제시부는 화려한 장식을 추가한다는 점과, 서주에서 제시되지 않은 제3의 주제도 들려준다는 점에서 확장되어 있다. 이 주제들은 크게 대조적이지는 않아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형식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2악장은 세 도막(A-B-A)으로 구성된 가요형식으로, 1악장의 안정된 분위기와는 달리, 모차르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슬픔의 끝에 이른다. 흐느끼는 듯한 피아노의 감성적인 선율은 현악의 음습하고 불안한 음향 위에서 더욱 가슴 저미게 다가온다. 삼현음과 도악이 특징적인 시칠리아노 리듬에서 외로운 무희의 애절한 춤사위가 어른거리기도 한다. 중간 부분에서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연주하는 선율은 후에 오페라 <돈 조반니>(1787) 2막 시작 부분에 등장하는 삼중창 ‘Ah! taci ingiusto

core!’에 사용되었다.

3악장은 소나타와 론도가 결합한 형식으로, 피아노의 발랄한 터치로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기분을 고조시킨다. 과감하고 빠른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중에 간혹 2악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살며시 지나가기도 한다. 과거의 슬픔을 가슴 속에 묻어두고, 우리에게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모차르트에게 올림바단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였을까? 모차르트의 가까운 친구이자 멘토였던 요제프 하이든(1732-1809)에게도 100개가 넘는 교향곡 중 올림바단조로 작곡된 교향곡이 단 한 곡 있다. 바로 45번 ‘고별’. 모차르트는 누군가와 이별을 슬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보면 1악장은 사랑, 2악장은 이별, 그리고 3악장은 극복을 표현한다고 생각해도 어색하지 않아 보인다. 이것은 필자의 상상이다. 여러분도 이 음악을 들으며 모차르트가 자신의 음악에 새겨 넣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상상해보길 바란다.

프르트 일리치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나단조  
작품 74 ‘비창’

Pyotr Ilyich Tchaikovsky  
Symphony No. 6 in b minor  
Op. 74 ‘Pathétique’

차이콥스키(1840-93)는 1891년 여름에 새로운 교향곡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삶을 주제로, 1악장은 충동적인 열정과 자신감, 활동에 대한 갈망, 2악장은 사랑, 3악장은 실망, 4악장은 죽음을 의미했다. 그런데 차이콥스키는 가을에 갑자기 작곡을 중단했다. 자신감을 잃은 탓이었다. 그는 1880년대에 들어서 자신의 작품이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인지 확신하지 못하여 작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심하게 떨어진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야.” (1893년 1월 28일 동생 모데스트에게)

그러던 중 차이콥스키에게 새로운 영감이 찾아왔다. “새로운 교향곡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네. 이번엔 표제 교향곡이지. 내용은 모두에게 수수께끼로 남겨두려 해. [...] 그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여행 중에 마음속으로 작곡하면서 몇 번이고 펄펄 울었어.” (1893년 2월 23일 조카 블라디미르 다비도프에게) 차이콥스키는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했고, 8월에 작품을 완성했다. “나는 진정으로 일생에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을 썼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매우 행복합니다.” (9월 1일 출판업자 페테르 위르겐손에게)

10월 28일 차이콥스키의 지휘로 이루어진 초연에서는 ‘교향곡 6번 나단조’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차이콥스키는 이 곡이 절대음악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기에, 출판할 때에도 이 이름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느리고 무거운 마지막 악장 때문에 좋은 평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위르겐손은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을 요구했다. 이에 차이콥스키는 모데스트가 제안한 ‘비창’을 제목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러시아어 ‘Патетический’(빠떼찌체스끼)는 강렬한 감흥이나 강한 감동을 의미한다. 즉, 차이콥스키는 슬픔이라는 직접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어떠한 극적인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초연 후 단 9일 후인 11월 6일에 차이콥스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그는 콜

레라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독에 의한 자살이 유력하다.) 18일 추모음악회에서 재연된 이 마지막 교향곡은 작곡자 자신의 진혼곡이 되어, 슬픔에 잠긴 참석자들에게 초연에서 느끼지 못했던 큰 감동을 주었다. 이러한 반전을 타고, 이 곡은 ‘Патетический’가 아닌, 마음속의 깊은 슬픔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Pathétique’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출판되었다.

<비창 교향곡>은 교향곡의 일반적인 양식과는 차이가 커서, 네 개의 교향시 모음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1악장은 소나타 형식이기는 하지만 음악적 내용은 자유롭다. 흐느끼는 바순과 탄식하는 현악으로 서주가 연주된 후, 바순 선율이 변형된 제1주제가 공포에 휩싸인 듯 불안한 분위기로 비올라에 의해 제시된다. 반면에 매우 감성적인 제2주제는 차이콥스키의 가장 아름다운 선율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데 발전부는 폭풍처럼 거세게 몰아치며 대단원에 이르고, 짧은 재현부를 거쳐 관악기의 장엄한 코랄이 울려 퍼지는 평온한 코다로 마무리한다.

2악장은 느린 악장이 아닌, 왈츠를 연상시키는 춤곡이 연주된다. 그런데 첼로의 주제 선율은 어딘가 모르게 절뚝거린다는 느낌을 주는데, 5/4박자라는 독특한 박자에 그 이유가 있다. 5박자의 춤곡, 그에게는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랑의 이미지를 그린 것은 아니었을까. 중간 부분에는 운명의 발걸음과 같은 팀파니의 연타를 배경으로 그리움을 가득 담은 선율이 등장한다. 그리고 주제를 재현한 후 짧은 코다로 마무리한다.

3악장은 스케르초 대신 발전부가 없는 소나타 형식으로 진행된다. 빠른 타란텔라 리듬으로 중얼거리는 경쾌한 선율과 웅망하고 절도 있는 행진곡이 결합되어 있으며, 반전 없이 힘차고 긍정적으로 마무리한다.

하지만 4악장의 첫 주제는 3악장 마무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급격히 깊은 절망과 비통에 빠지고 만다. 단순히 내려오는 선율로 들리지만, 사실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이 한 음 한 음 번갈아 연주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지휘자를 중심으로 마주 보도록 두 바이올린 파트를 배치하여 소리가 좌우로 움직이는 듯한 공간적인 효과를 꾀하기도 한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위로를 얻고 평온하게 추스른다. 하지만 이는 잠시일 뿐, 다시 절망의 주제로 돌아와 열정적으로 내달린다. 그러나 공(큰징)이 정해진 운명을 알리고, 위로의 주제가 연주되며 조용히 죽음을 맞는다.

<비창 교향곡>에 담긴 ‘개인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혹시 1891년에 구상했던 자신의 삶은 아닐까? 3악장이 ‘실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4악장 ‘죽음’은 너무나 들어맞고, 다른 악장들도 어울린다. 어쨌든 이 곡의 내용은 아무도 모르고, 알 수도 없다.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를 상상하여 만들어보길 바란다. 이것이 차이콥스키가 이 곡에 제목을 붙이지 않으려고 했던 진정한 의도이다.

글 | 송주호(음악칼럼니스트)

# 요요마 바흐 프로젝트

YO-YO MA THE BACH PROJECT



2년간 6개 대륙  
36개 도시 월드 투어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연주

2019.9.8 SUN 6 PM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지휘자/피아니스트

정명훈

Conductor/Pian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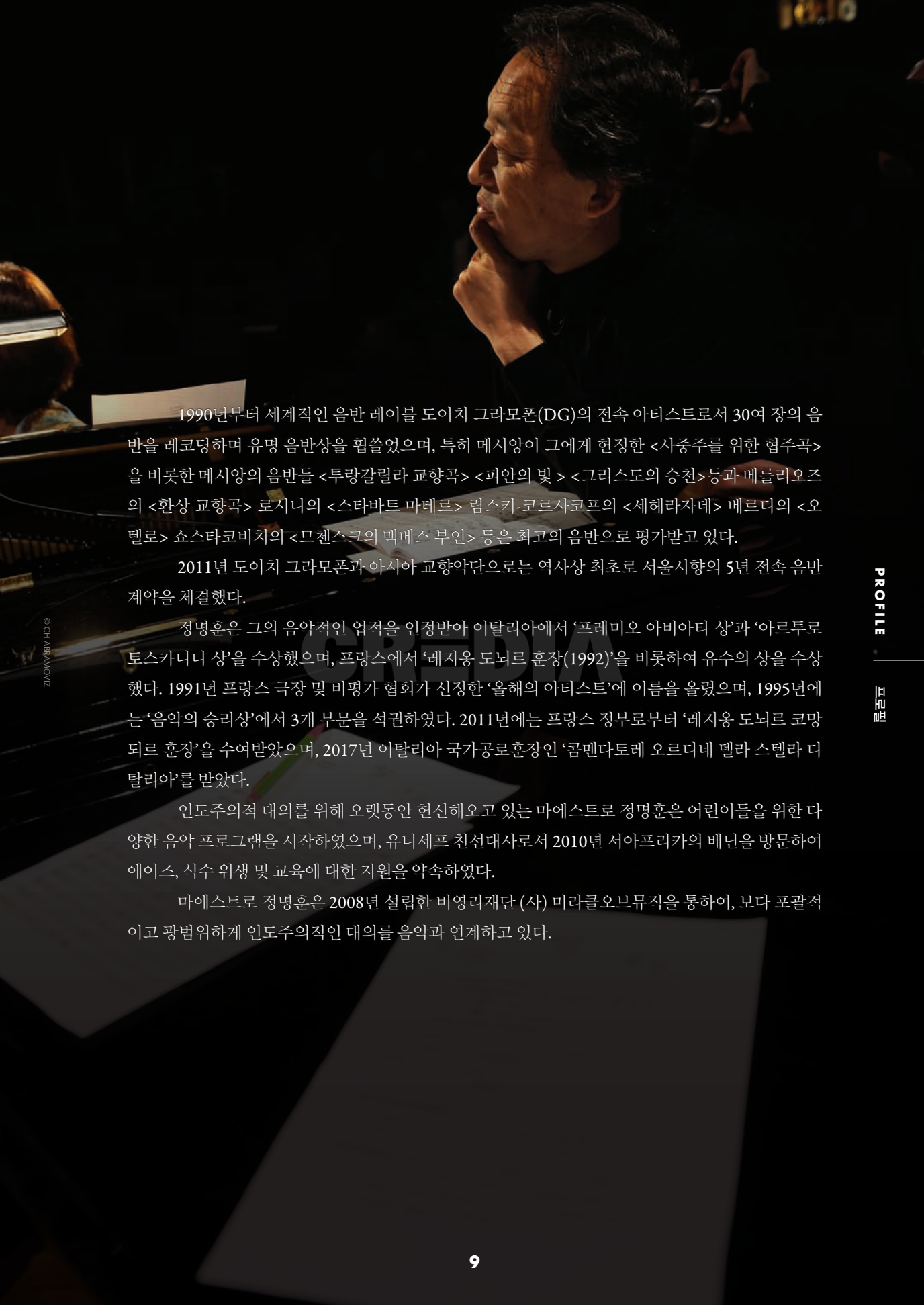
Myung-Whun Chung

정명훈은 1974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이콥스키 피아노 국제 콩쿠르에서 2위를 수상하며 피아니스트로서 음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뉴욕 매네스 음대와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공부한 그는 1979년 거장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보조지휘자로 경력을 시작하여, 2년 후 이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로 임명되었다.

1984-1990년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1987-1992년 피렌체 테아트로 코뮤날레(플로렌스 시립극장) 수석객원지휘자, 1989-1994년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음악감독을 역임했으며, 2000년에 다시 파리로 돌아와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다. 또한 1997-2005년 로마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를 역임하며, 수 년간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밀접하게 활동해왔다. 정명훈은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에서 <나비부인> <시몬 보카네그라> <오텔로> <트리스탄과 이졸데> 등의 오페라 작품을 정기적으로 지휘했으며, 빈 슈타츠오페에서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를 지휘했다. 2012/13시즌에는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역사상 최초의 수석 객원지휘자로 임명되었으며, 이외에도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특별 예술 고문과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 감독(2006-2015)을 맡아 아시아에서의 음악적, 사회적 대의를 위해 헌신해왔다.

2018/19 시즌에는 라 페니체 극장에서 <맥베스>와 <오텔로>를, 빈 슈타츠오페에서 <오텔로> 테아트로 알라 스칼라에서 <라 트라비아타>를 지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라 페니체 극장에서의 신년음악회와 콘서트트허바우 복귀 무대에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라 스칼라 필하모닉과의 정기적인 연주 또한 앞두고 있다.

정명훈은 베를린 필하모닉,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서트트허바우, 라 스칼라 필하모닉 이외에도 런던과 파리의 주요 오케스트라 등 세계 최정상급 교향악단을 지휘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뉴욕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보스턴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와 공연하였다.



© CHARANOVIZ

1990년부터 세계적인 음반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DG)의 전속 아티스트로서 30여 장의 음반을 레코딩하며 유명 음반상을 휩쓸었으며, 특히 메시앙이 그에게 헌정한 <사중주를 위한 협주곡>을 비롯한 메시앙의 음반들 <투랑갈릴라 교향곡> <피안의 빛> <그리스도의 승천> 등과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로시니의 <스타바트 마테르> 립스카-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베르디의 <오텔로> 쇼스타코비치의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 등은 최고의 음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1년 도이치 그라모폰과 아시아 교향악단으로는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향의 5년 전속 음반 계약을 체결했다.

정명훈은 그의 음악적인 업적을 인정받아 이탈리아에서 ‘프레미오 아비아티 상’과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상’을 수상했으며, 프랑스에서 ‘레지옹 도뇌르 훈장(1992)’을 비롯하여 유수의 상을 수상했다. 1991년 프랑스 극장 및 비평가 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아티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1995년에는 ‘음악의 승리상’에서 3개 부문을 석권하였다. 2011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코망되르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2017년 이탈리아 국가공로훈장인 ‘콤멘다토레 오르디네 델라 스텔라 디탈리아’를 받았다.

인도주의적 대의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오고 있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유니세프 친선대사로서 2010년 서아프리카의 베닌을 방문하여 에이즈, 식수 위생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2008년 설립한 비영리재단(사) 미라클오브뮤직을 통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인도주의적인 대의를 음악과 연계하고 있다.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 One Korea Orchestra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는 남북한 교류를 목적으로 국내 오케스트라 전·현직 단원과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출신 연주자 등이 모인 교향악단이다. 원 코리아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되는 한국’을 표방하는 이 단체는 정명훈 음악감독의 리더십 아래 화합과 평화를 연주하기 위해 모였다.

“나는 음악인이기 이전에 한국인이고, 한국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일은 남북한 문제이다”라는 정명훈 지휘자의 말은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의 탄생 배경을 한 마디로 설명한다. 그는 오래 전부터 ‘남북 합동 오케스트라’ 무대에 관심을 보여왔다. 2012년엔 프랑스 파리에서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과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의 합동연주를 지휘하기도 했고, 이후 2015년 평양에서 독일 교향악단을 지휘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 악화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2017년 첫 공연을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성황리에 마쳤으며, 2018년 두 번째 정기공연에서는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며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연주했으며, 2019년 8월 세 번째 정기공연을 앞두고 있다.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통해 남북한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언젠가 남북한 음악가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대한민국을 노래하는 것이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다.



악장  
임지영

Concertmaster  
Ji Young Lim

2015년,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20세의 어린 나이에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한 임지영은 당시 놀라운 집중력, 대담하면서도 안정된 연주, 단련된 테크닉 등 다양한 강점들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에서 참가한 쟁쟁한 후보자들 사이에서 압도적 우승을 거두며 전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임지영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하여 김남윤을 사사하며 예술사 과정을 졸업하였고, 최고 연주자 과정 중 도둑하여 현재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미하엘라 마틴 교수의 지도 하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만 14세에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이래로 일찍이 다양한 무대에 오르며 국내외 관객들을 만난 임지영은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개성있는 솔리스트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안드라스 쉬프, 기돈 크레머, 스티븐 이설리스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연주하며 폭 넓은 음악 세계를 보여주었다.

2015년부터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에게 4년간 특전으로 주어지는 스트라디바리우스 ‘허긴스(Huggins, 1708)’를 사용하였으며, ‘허긴스’ 이후 1717년 제작된 스트라디바리 ‘사세르노(Sasserno)’ 대역자로 결정됐다.

2017년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함께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등을 녹음한 그녀의 첫 앨범이 워너 클래식 레이블을 통해 전 세계에 발매되었다.



# 2019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단원리스트

◇ 수석

## 악장

임지영 2015 킨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 제1바이올린

이석중 ◇ 인제대학교 교수

이윤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2악장

강혜리 독일 다름슈타트 국립극장 단원

심보라미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석

신민경 대전시립교향악단 수석

김민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양유진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두루미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우혜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김지윤 디토 오케스트라 수석

노유미 과천시립오케스트라 차석

김선우 KBS교향악단 단원

조진원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차민정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이은새 원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부수석

## 제2바이올린

설민경 ◇ 독일 밤베르크 교향악단 단원

임가진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한아름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석

김예원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김범구 디토 오케스트라 수석

한효 제주도립교향악단 수석

김미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김지원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조은주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김영아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김은근 KBS교향악단 단원

이민혜 부천시립교향악단 단원

김나영 대구시립교향악단 단원

이호준 디토 오케스트라 단원

박현욱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객원 단원

김지용 원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부수석

## 비올라

진덕 ◇ KBS교향악단 수석

이수민 인제대학교 교수

이신규 클럼M 멤버

남강륜 빌레펠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부수석

조윤주 디토 오케스트라 수석

황여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김대일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김유나 대전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이기현 충북도립교향악단 수석

김수영 제주도립교향악단 차석

조재현 디토 오케스트라 단원

변은혜 KBS교향악단 단원

노예은 인천시립교향악단 비상임 단원

강민정 원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부수석

# 2019 One Korea Orchestra

## Musician List

### 첼로

- 문태국 ◇ 2014 파블로 카잘스 콩쿠르 우승  
2019 차이콥스키 콩쿠르 4위
- 윤여훈 KBS교향악단 부수석
- 목혜진 부천시립교향악단 수석
- 김근혜 전주시립교향악단 수석
- 김소연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 박무일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 배성아 창원시립교향악단 수석
- 김신애 KBS교향악단 단원
- 최선유 부천시립교향악단 단원
- 박소진 디토 오케스트라 단원
- 정다운 대구시립교향악단 단원
- 정윤희 원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수석

### 더블베이스

- 안동혁 ◇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 배기태 디토 오케스트라 수석
- 추대희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 이유영 베를린도이치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 단원
- 김진철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 한민아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 박상현 과천시립교향악단 수석
- 김아람 부천시립교향악단 단원
- 이다겸 인천시립오케스트라 단원
- 김민철 원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수석

### 플루트

- 조성현 ◇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 조철희 前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수석 트라이얼
- 박예은 디토 오케스트라 단원
- 오보에
- 김영민 ◇ 인천시립교향악단 제1차석
- 김인경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 클라리넷

- 김상윤 ◇ 세인트폴 체임버 오케스트라 수석
- 박병호 원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수석

### 바순

- 이민호 ◇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석
- 조지명 독일 카이저스라우터른 주립극장 단원

### 호른

- 이석준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이호권 원주시립교향악단 단원
- 최대혁 충남시립교향악단 수석
- 유해리 2019 차이콥스키 콩쿠르 7위
- 고영중 디토 오케스트라 단원

### 트럼펫

- 정태진 ◇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객원단원
- 김주원 KBS교향악단 부수석

### 트럼본

- 차태현 ◇ 부천시립교향악단 단원
- 손상우 디토 오케스트라 수석
- 김태훈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 튜바

- 양준영 ◇ 디토 오케스트라 단원

### 탐파니

- 윤재현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타악기 차석

### 타악기

- 오지예 KBS교향악단 단원
- 김성훈 수원시립교향악단 단원

## 8월, 평화의 온도계가 올라간다

### 대립과 분쟁이 있는 곳에는 음악이 있다

2018년 11월 11일, 독일 카르멘뷔르트포럼 Carmen Würth Forum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 울려 퍼졌다. 제1차 세계대전의 총성을 멈춘 종전 협정일인 1918년 11월 11일로부터 100년이 흐른 날이었다. 연주에는 평화를 위한 월드오케스트라 World Orchestra For Peace와 뷔르트 필하모니커 Würth Philharmoniker가 함께했다. 그해 1월, 판문점에서는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예술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4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기도 했다. 평화를 위한 월드오케스트라는 지휘자 게오르크 솔티(1912~1997)가 창단했다. 그의 오랜 준비 끝에 이 교향악단이 모습을 드러낸 때는 1995년, 유엔 50주년 기념 연주회에서였다. 40개국 81명의 단원으로 이뤄진 교향악단. 창단 동기에는 어린 시절 세계대전 속에서 아버지를 여읜 솔티의 개인사도 담겨 있었다. 현재는 발레리 게르기 예프가 솔티의 의지를 이어 가고 있다. 합동연주를 한 독일 뷔르트 필하모니커도 정치적 분쟁과 관계 없이 전 세계 젊은 음악가들이 모인 제2의 평화 오케스트라다. 대립과 분쟁이 있는 곳에는 오케스트라가 있어 왔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끄는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West Eastern Divan Orchestra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 분쟁 지역의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평화 오케스트라다. 동과 서, 종교와 문명권을 뛰어넘는 인류애를 노래한 괴테의 <서동시집>은 문학을 넘어 평화를 향한 깃발이 됐다. 2011년 그들은 임진각에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북녘으로 보내기도 했다. 구스타보 두다멜이 어린 시절 음악과 함께 화해와 합동의 감각을 키운 엘 시스템아 El Sistema도 오늘날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 정명훈과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가 만들 남북의 음악 가교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는 화합과 평화를 노래하기 위해 한국의 음악가들이 모인 교향악단이다. 언젠가 남·북한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진정한 ‘원 코리아 One Korea’로 무대에 서길 꿈꾸며 시작된 이 악단은 2017년 8월에 첫 공연을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성황리에 마쳤으며, 2018년 9월 2일 예술의전당 <평화콘서트>에서 베토벤 ‘합창’을 선보인 바 있다. 창립부터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정명훈은 오래전부터 대립과 분쟁의 현장에서 음악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1996년 한국·일본·중국·홍콩·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 등의 음악가들이 정치 이념을 넘어 함께한 최초의 범아시아 교향악단인 아시아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이도 정명훈이다.

당시 그는 언론을 통해 “아시아는 폭력적인 제국주의에 의해 핍박받고 수난을 당한 상처를 안고 있다”고 말하며 “아시아의 연주자들이 모여 아름다운 음악으로 서로의 마음을 달래고, 나아가 서구세계에 아시아의 음악적 역량을 알리고 싶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예술이란 무기는 될 수 없어도, 부대를 이끄는 깃발과도 같은 것’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이를 계기로 정치적 노선이 다르고, 역사적 아픔이 양금처럼 남아 있던 아시아 국가들의 만남은 이후로도 음악을 통해 활발히 펼쳐졌다. 2012년 정명훈은 파리에서 북한 은하수관현악단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합동 공연을 지휘했다. 2015년 평양에서 독일교향악단을 지휘할 예정이었으나 관계 악화로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

“일평생 외국에서 살았지만 내 나라가 갈라져 있는 상황은 항상 가슴 아팠다. 분단 상태가 길어질수록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는데, 음악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무엇이랄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를 생각하게 됐다.”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만남과 행진이 세 번째를 맞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정명훈이 직접 협연자로 참여하여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을 연주하니, 피아노와 마주한 정명훈의 모습을 오랜만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글 | 송현민 (음악 칼럼니스트)

위 글은 월간 <예술의전당과 함께 Beautiful Life!> 2019년 8월호에서 전제한 기사입니다.





## 정명훈이 이야기하는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의 비전

일평생 외국에서 살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 나라임에도, 이렇게 갈라진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아팠다. 이 현실이 더 오래갈수록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음악가로서 무엇이랄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었다.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모두들 공감할 것이다. 일평생 하고 싶었던 것이 ‘어떻게 하면 갈라진 나라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었고, 인간을 가장 깊이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향에 몸 담고 있을 때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북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뜻의 송년음악회를 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벽이 많이 있었고 실행시키기 쉽지 않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한 나라 One Korea’(통일)에 대한 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 꿈에 대해 점점 멀게 느끼고 있는 듯하다. 통일이 되어도 한국에 좋은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꿈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는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연주 무대와 레코딩을 통해 작은 금액이라도 북한, 특히 그곳의 어린이들을 돕고 싶었다. 언젠가는 같이 하는 날이 오겠지만 일단 작은 일이라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북한의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통일의 꿈을 상기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ALL SCHUBERT  
PROGRAM

# 피터 비스펠베이 첼로 리사이틀

Pieter Wispelwey Cello Recital

2019.9.24 TUE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9 스타즈 온 스테이지, 두번째 이야기



# STARS ★ ON ★ STAGE



장유진 | 임주희 | 양인모 | 문태국 | 벤킴 | 리처드 용재 오닐 | 다니엘 정 | 자니 리 | 문태국 | 스티븐 린

2019.10.6 SUN 5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CREEDIA  
INTERNATIONAL

# 미샤마이ски &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MISCHA MAISKY & MUSIKKOLLEGIUM WINTERTHUR

지휘 토마스 체트마이어

2019.10.25 FRI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24.THU 강릉아트센터 | 10.26.SAT 대구콘서트하우스



Norwegian Embassy

CREEDIA



TRONDHEIM  
SYMPHONORKESTER  
& OPERA

CREEDIA  
INTERNATIONAL

#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Han-Na Chang & Trondheim Symphony Orchestra

협연 피아니스트 임동혁

2019.11.13 WED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13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11.14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11.16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 11.17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주최  
CREE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50

예매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BEETHOVEN 250<sup>th</sup> ANNIVERSARY

CREDIA  
INTERNATIONAL

#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 ANNE-SOPHIE MUTTER VIOLIN RECITAL —

PIANO - LAMBERT ORKIS

2019.11.29 FRI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CREDIA  
INTERNATIONAL

#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 SARAH CHANG VIOLIN RECITAL —

JULIO ELIZALDE, PIANO

2019.12.29 SUN 5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17 대구수성아트피아 | 12.20 울산예술회관 | 12.21 안양예술의전당 | 12.24 천안예술의전당 | 12.25 동해문화예술회관 | 12.27 고양아람누리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50

예매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STEINWAY & SONS

# SPIRIO

세계 유명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우리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신개념 피아노

\* STEINWAYSPIRIO.COM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RHAPSODY IN BLUE  ECSTATIC IN PINK

언제나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명품 콘서트 - 스타인웨이 스피리오.

iPAD와 연동하여 세계 유명 피아니스트의 곡을 무료로 얼마든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주) 코스모스악기**

스타인웨이 피아노 갤러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 (주)코스모스악기 3층 TEL (02)522-8844

자세한 정보는 STEINWAYSPIRIO.COM 를 방문하세요.



STEINWAY & SONS



2019 글로벌 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 AMSTERDAM

동화 속 풍경이 일상인 나라, 네덜란드에 반하다

대한항공 인천 - 암스테르담 주 6회 운항  
유럽 여행의 중심, 암스테르담으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www.koreanair.com](http://www.koreanair.com)



정명훈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CREDIA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후원회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INTERNATIONAL

CREDIA  
ENTERTAINMENT



# CREDIA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http://www.clubbalcony.com)